

었다. 會長인 李弘植 高大博物館長의 司會로 開催되어 事業內容 會計等의 報告에 이어 機關紙「古文化」의 編輯方針, 相互協助問題等이 討議되고 第五回聯合展示는 全南大學校博物館에서 열기로 決定하였다. 午後에는 梨大主催 晚餐會가 「麥心그릴」에서 있었는데 特別히 이 자리에서 延世大博物館長 孫寶基教授에 同大學校에서 數年來繼續해 오던 公州錦江流域 遺蹟發掘에 對한 說明이 있었다.

—第七卷 第七號 通卷 七十二號—

## 石窟庵의 建築的인 營造計劃

申 榮 勳

### 一、序言

石窟庵의 營造計劃에 대하여는 여러가지의 論攷가 있었다. 이러한 論攷는 大部分 日帝時代 補修한 모습을 原形으로 보고 혹은 그것을 基幹으로 삼고 論述하였다.

日政期の 石窟庵補修는 日人學者를 自身이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精緻한 復原的인 工事を 위한 姿勢가 缺如하였고 學術的인 考察의 바탕을 가진 知識을 活用하지 않은 單純한 土木工事的인 施工이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지경이었다.

工事當時 總督府에 報告된 書類에서 施工의 方案이나 手法를 찾아 보아도 어떻게 이처럼 安易하고 便宜대로 施工하였는지 驚愕을 금할 수 없고 一人 技師의 恣意가 橫行한 足蹟이 歷然하다. 特別히 前室構造의 原形喪失은 極端의 일로 八部衆中 前庭二像을 內向하여 세운 措置에 대하여는 日人스스로도 酷評을 加하고 애초에 二像을 「엑스트라」로 취급하고만 學者①도 있을 정도이다.

修理前 實測圖나 寫眞에 의하면 분명히 配置되어 있었던 部材가 修理時에 除去되었거나 變形(位置)된 것이 前室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보이고 倭色이 加味된 새로운 施設을 遺憾없이 發揮한 곳도 이 前室部位에서 있었다②.

第七卷 第七號 通卷 七十二號

日政期 修理에서 收拾되었어야 할 各種資料는 前記 知識의 未洽과 土木工事的인 態度로 散逸 혹은 無視되어 몇가지의 遺例 以外는 記錄조차 남아 있지 않은 形便이지만 前記한 圖面이나 寫眞에서는 前室과 石窟上部의 屋蓋設置 門扉의 施設과 前室 前庭의 石築 등을 볼 수 있다.

石窟庵을 考察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日政期 修理에 따른 變形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變形된 面貌를 原形으로 생각하여 그에 따른 營造計劃의 根幹을 實測值에 의하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價値가 없는 徒勞에 끝날 餘려가 있는 것이다.

一九六一年부터 三年間 石窟庵을 補修할 때 變形된 原形을 찾기 위하여 莫大한 精力을 傾注하였다고 한다. 筆者도 一九六三年 七月一日부터 滿一年間 現場에 參與하여 그 一翼을 담당한 바도 있지만 現場에서의 結論을 들어 보면 첫째 지금의 石窟庵은 嚴密한 意味에서의 左右對稱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이에 따라 各單位의 部材는 位置와 높이가 조금씩 다르고 셋째 補修工事 施工의 便宜上 古材를 交替 혹은 加工하였으며 넷째 倭色이 지나치게 많이 加味되었고 (交替된 新石材는 全部를 日人石手로 하여금 加工케 하였다) 다섯째 施工의 未洽으로 因한 歪曲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結論은 앞에서 말한 變形된 狀況을 端的으로 證明하는 것인데 이러한 諸般要素와 條件을 整理하여 石窟庵을 可及的 原形으로 還元하지 않고는 그의 營造計劃을 考究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豫備知識을 갖고 우리의 考察을 계속하여야 했고 따라서 從來의 學說에서 취급한 것과는 그 對象이 전혀 다른 것이다.

### 二、營造計劃

便宜上 米田美代治氏의 『慶州石窟庵의 營造計劃』③에서 說明한 要點과 우리의 考察과를 比較하기로 한다.

#### 가, 使用尺

米田氏는 佛國寺의 使用尺數值○·九八〇一二五曲尺(唐尺一尺)과 石塔④등을 綜合하여 본 결과 標準唐尺으로 石窟庵도 造營되었다고 보고 窟全體의 計劃을 解析하였다.

筆者도 唐尺使用說에는 同意하나 綜合檢討의 方案이나 窟內에서의 唐尺檢出方法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고 있다. 우선 불국사의 使用尺과의 비교는 卓見이나 石塔과의 比較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고 窟內에서의 檢出은 石窟平面圓直徑(23.6 曲尺 23.6 + 0.98 = 24.072 ≐ 24.0) 보다는 窟의 module이 되는 本尊臺座나 周圍佛像에서 찾았어야 옳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平面은 앞에서 이미指摘한 바와 같이 또 米田氏도 『窟은 完圓의 平面이 아니라 본래의 의도는 完圓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건 당초의 用材로 인한 것인 지 수리시의 誤算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나』 하에서 完圓이 아닌 것에서 基本數値의 資料를 얻으려 하였던 점은 納得이 되지 않는다. 實測技術로 보아도 本尊臺座中心點을 通過하는 窟의 直徑을 재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닌 것이다.

米田氏는 綜合檢討에서 얻은 唐尺을 〇·九八二〇七尺의 比率로 算出하였는데 이는 石塔에서 얻은 數値三件과 石窟平面直徑에서 얻은 數値와를 加算한 후에 平均値를 얻은 것으로 筆者가 窟內 各部材의 規格에서 얻은 平均値 〇·九八一六五尺과 若干의 差異를 보인다.

米田氏와의 相異는 0.98207 - 0.98165 = 0.00042로 불과 근소한 차이인데 數値의 比率平均 등의 計算에서는 어떤 경우 상당한 차이를 초래할 수도 있는 相異인 것이다. 그러나 實際施工이나 檢尺에서는 各尺에서 찾을 수도 없는 尺數로 이러한 差異程度는 看過하여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標準唐尺이라 하는 〇·九八尺으로 石窟庵은 營造되었다고 보아도 좋겠다.

三、平面計劃

米田氏는 前室의 屈曲部를 原形으로 認知하고 窟을 一一·四唐尺 + 扉道前室 二唐尺은 四三·四唐尺이라고 計算하여 窟奧壁부터 前室入口까지의 總長을 檢出하였으나 筆者는 全長이 四八唐尺으로 窟直徑과 扉道와 前室의 長이가 各已 二四唐尺씩이라고 解析하였다. 이는 根本인 差異點인데

12.0(窟半徑) + 10.4(八角柱部分前端綫) + 9.4(窟開口部奥行) + 11.6(前室奥行) = 43.4唐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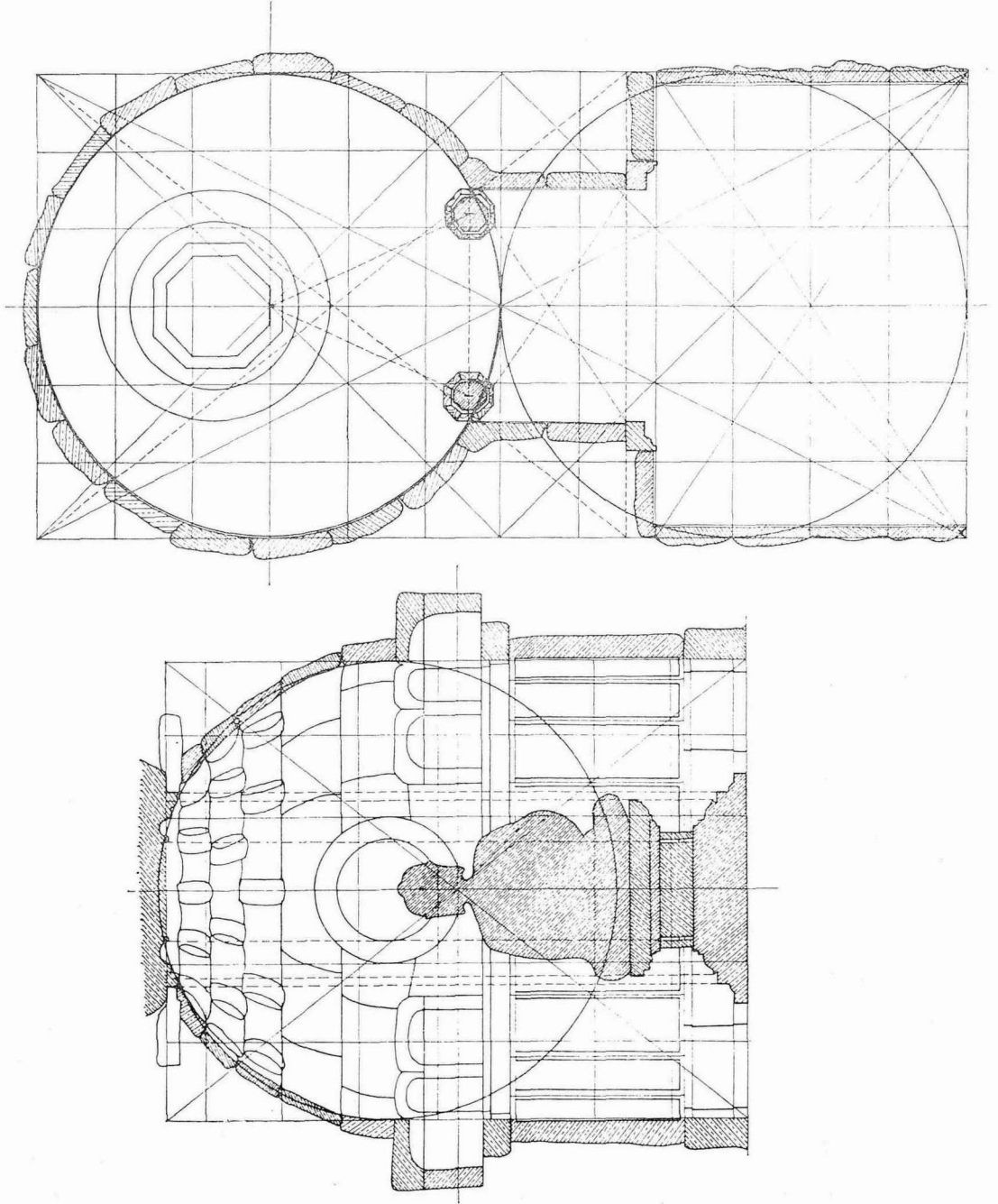
別表 第 1 平面復原尺의 比較

| 各部名稱  | 米田復原尺         | 筆者復原尺 | 相差  |
|-------|---------------|-------|-----|
| 前室開口  | 13.158唐尺      | 22.6  |     |
| 同 間口  | 21.276 "      | 23.0  |     |
| 同 奧行  | 11.628 ≐ 11.6 | 16.0  | 4.4 |
| 扉開口外部 | 11.373 ≐ 12.0 | 12.0  | 0   |
| 同 內部  | 11.251        | 12.0  |     |
| 同 奧行  | 9.384 ≐ 9.4   | 9.0   | 0.4 |
| 石柱間隔  | 8.568         | 9.0   |     |
| 石窟內直徑 | 24.072 ≐ 24.0 | 24.0  | 0   |
| 同 縱直徑 | 22.154        | 23.0  |     |

註：名稱은 比較便宜上 米田氏 所說의 그것을 그대로 使用하였다.

米田氏는 窟開口外部 一一尺과 窟直徑 二四尺만을 完尺으로 보았을뿐 一一·六尺과 九·四尺 등 모두 完尺으로 解析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定義하였는지 궁금하나 重要한 窟直徑과 窟開口外廓을 完尺으로 보았으면 나머지 부분도 完尺으로 보았어야 옳을 것이다.  
前室에 三唐尺의 方眼을 그 어 맞지 않는 數値를 억지로

이라고 米田氏가 풀이한 반면에 筆者는 12.0(窟半徑) + 11.0(窟과 扉道와의 屈曲部端) + 9.0(扉道長이) + 16.0(前室長이) = 48.0唐尺  
라고 본 것으로 前室의 長이에서 根本的 相異를 보인다.  
前室은 一九六一年度 修理時 여러가지 傍證<sup>㉔</sup>으로 屈曲部를 展開하여 一面에 四驅石 八部衆이 並列하는 것이 原形임이 判別되었고 添加된 二驅를 倭式으로 復原하는 것 보다는 他六驅나 窟內諸佛의 규격과 같은 것으로 키우는 것이 (日政期修理時에는 四塊石으로 佛像額을 補完하였으나 今般補修值數보다 적었다) 當然함으로 그렇게 하여 原形을 찾았으므로 前室全體의 長이는 自然히 增加하여 米田氏의 一一·六尺보다는 四·四尺 길어졌다.  
平面計劃으로 보아도 처음 設計를 할 때 使用尺의 完尺으로 裁斷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一般的인 方法이라 하면 前室의 長이를 完尺이 아닌 一一·六尺으로 잡았을리 없고 실사 그렇게 設定한다 해도 一一·五尺이면 그런대로 잡을 일이지 구태어 一寸을 加味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 扉道를 四寸더 본 것도 이러한 감각에서 벗어난 일이다.  
平面解析을 米田氏 分類에 따라 細分하여 보기로 하자(別表一參照)



解析하느라 애쓴 點도 그러한 傾向의 하나인데 筆者는 平面의 比例를 다음과 같이 본다.

먼저 全長을 四八尺으로 잡고 兩分하여 窟直徑을 二四尺 扉道와 前室을 一四尺으로 하고 扉道幅을 一二尺으로 잡았다. 이 一二尺은 本尊臺 座下臺石의 直徑과 같은 것으로 窟全體를 構成하는 母率(module)을 삼아 一二尺의 二倍는 窟直徑과 같고 一二尺의 四倍는 全長과 같고 一二尺의 三分之一은 佛像板石幅(四尺)으로 하는 등 지금도 建築技法으로 傳承되어 오는 三分變作法이나 一·二·三·四·五·六·八 等の 比率를 使用하였다.

前室은 仁王像幅을 基本으로 하여 그것의 四倍가 前室의 長이를 이루고 仁王像幅의 二倍에다 虹霓柱幅을 합하면 扉道の 長이가 되며 仁王像板石表面부터 扉道屈曲部까지의 長이가 八角柱心間의 거리와 같고 窟內의 配置는 仁王像幅의 一六倍로 圓을 그리고 있으며 窟中心點과 兩側八角柱心까지의 거리는 扉道の 幅과 같아 本尊臺座의 下台幅은 平面뿐만 아니라 立面에서도 母率의 구실을 한다.

이처럼 石窟庵의 營造計劃은 單純한 算法을 바탕으로 하였던 모양으로 米田氏가 解析한 바와 같은 複雜性은 갖지 않았던 듯 하다. 樣式에서 單純性을 最良의 美的 感覺으로 받아들였던 우리나라의 民族性은 技法에서도 가장 根本的이고 簡素化한 數法을 사용하였던 모양이다. 이러한 證佐는 비단 여기서 뿐만 아니라 木造建築이나 塔婆(石造)에서도 窺見할 수 있다.

#### 四、立面計劃

여기서도 亦是 米田氏의 分類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別表 第二 參照)

立面에서는 別表에 보이는 바와 같이 三件을 完尺으로 보고 있어 우선은 平面에서보다 한가지를 더 完尺으로 보았고 說明文中에는 『小龕上緣의 位置に於て二四唐尺を直徑とする 圓周上に半徑一二唐尺の半圓面形に石組されて 居ると計劃的に見做され』라는 解釋이 있다. 그리고 嵌腰石 高는 三唐尺 板石(佛像)高는 九唐尺으로 計劃되었고 八角石柱는 邊徑을

別表 第二 立面復原尺의 比較

| 各 部 名 稱         | 米田復原尺  | 筆者復原尺 | 相差  |
|-----------------|--------|-------|-----|
| 窟 半 徑           | 12.036 | 12.0  | 0   |
| 腰 嵌 石 高         | 2.960  | 12.0  | 0   |
| 壁 石 高           | 8.976  |       |     |
| 長 押 石 高         | 1.48   | 5.25  | 6.0 |
| 小 龕 割 高         | 3.77   |       |     |
| 天 蓋 高           | 29.172 | 30.0  | 0   |
| 小龕室上緣부터 天蓋까지 높이 | 12.0   | 12.0  | 0   |

註：名稱은 比較便宜上 米田氏 所說을 따랐다

總高는 臺座의 높이와 같다.

立面에서 米田氏와 意見이 같은 점이 많은 것은 日政期修理時이 部分의 修補에는 커다란 失策을 저질렀기 때문에 比較의 原形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가 前記한 以外部分을 復原하여 본計劃意圖는 대략 다음과 같다. 窟의 立積을 잡을 때 二四唐尺의 窟方形을 底面으로 하여 三〇尺高의 네모꼴을 잡고 그 안에 一八尺高의 完圓을 세운 후에 光背中心點을 起點으로 한 一二尺半徑의 圓을 그려 그 半圓에 해당하는 部位에 天井을 設置하도록 하였던 모양이다. 天井은 半圓弧에 따라 築造되지 않고 半徑起點에서 같이 出發하되 天井石 一段부터 內曲을 급하게 잡아 橢圓形처럼 줄어들라 가다가 蓮華天井石中心點에서 다시 半徑의 長이와 같은 간격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五段의 天井石은 中間三段 옆 中心으로 하여 上下가 같은 비율로 減감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技法은 高度化된 것으로 洞窟들이 各段配置마다 다르게 端面을 處理한 점과 더불어 높이 評價하여야 될 점이다.

約一·九五唐尺으로 잡았던 모양이라 하였다. 이러한 點은 卓見으로 腰石(眼象石)의 高이는 六唐尺의 本尊臺座(總高)의 1/2이고 板石高와 腰石의 高이를 합치면 一二尺으로 臺座高의 二倍 혹은 臺座下台의 直徑·窟의 半徑과 같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窟의 立面은 本尊臺座를 母率로 한다. 窟全體의 高이는 臺座高의 五倍이고 本尊像高는 臺座高의 二倍이다.

光背中心點까지의 高이는 臺座高의 三倍이며 龕室과 이마들의

光背의 直徑과 蓮華天井石의 內徑과는 같은 크기인데 이는 本尊台座의 仰蓮上石底徑과 一致하는 것이다. 또 이들의 直徑은 窟直徑의 三分之一에 해당하는 것이다.

五、結言

紙面 때문에 所論을 축소 혹은 省略하여서 石窟庵을 周知하고 있는 사람 말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弄잡을 수 없게 되었다. 또 米田氏의 所說을 修正한다는 의미에서는 數値를 提示하여 米田氏와의 數値를 比較하여야 옳았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였다. 단지 지금까지의 解析試圖가 옳은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再檢討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었다.

要컨대 數値에 열매어 정말 石窟庵을 잃고만 結果를 저질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數의 實測에 따르면 前室과 窟과는 使用尺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樣式 혹은 技法의 詳考가 後日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 論考를 위하여는 金東賢氏의 敎示가 컸다.

註 ① 柳宗悅『石佛의 彫刻에 就て』『柳宗悅選集』第四所載

② 實測圖는 原圖가 國立博物館에 所藏됨. 『長鬐郡石窟庵實測圖』(四枚)라 表題하다. 寫眞은 原版이 各處에 散在되어 있음. 一九六一年度 補修工事時 이러한 原版을 調査 印畫하여 『工事報告書』(未刊) 編輯用 資料로 採擇한 바 있다.

③ 米田美代治『慶州石窟庵의 造營計劃』(考古學)第一〇卷三號) 『朝鮮上代建築の研究』昭和九年刊

④ 이 石塔은 石窟庵南崗에 位置한 三層石塔을 말하는 것이다. 米田氏는 이 塔을 石窟과 同代(景德王代)로 보는 모양이나 筆者는 石窟보다 年代가 뒤떨어지는 石塔으로 推定하여 使用尺뿐만 아니라 樣式에 있어서도 相互의 比較는 成立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石窟庵補修工事報告書』(未刊)에 詳論되었으므로 여기서는 紙面關係도 있고하여 省略하나 序言에서 略記한 點을 想起하여 주기를 바란다.

谷城、石谷、竹谷의 石佛三軀

(全南谷城郡佛蹟二)

鄭 永 鎬

四、竹山里石佛立像

現在 石谷面 竹山里①二六七番地 崔圭氏(三〇才)宅 前庭의 草葺小屋內에 奉安되어 있다. 氏의 말에 依하면 이 洞里가 생기기 오래 前부터 이 자리에 있어 露天에 放置되고 頭部가 折損되어 있던 것을 近年에 「세멘트」로 頸部를 附着補強한 것이며 小屋도 崔氏家에서 마련한 것이 라한다. 四枚의 地台石上에 複葉八瓣의 圓形伏蓮石이 놓이고 그 위에 如來立像이 東向해 있는데 佛像과 台石의 石質이 틀리는 點②과 서로의 彫刻手法 및 樣式에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原位置인지 또는 本然의 台石인지는 疑問이며 注目된다. 이 石佛에 對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若干의 記錄이 보일 뿐이다. 全高二六七cm로서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었으나 破損되었고 白毫는 없다. 兩耳는 짧으며 相好는 圓滿한 편인데 鼻部의 磨損을 「시멘트」로 補強하여 印象을 그릇졌음은 遺憾된 일이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양쪽으로 흘러 내렸으며 臍前부터 兩膝까지의 衣紋은 流麗한 圓弧를 그렸다. 膝下部에는 裙衣의 下端이 발등까지 주름잡히면서 내려졌고 兩足은 露出되었 으며 足座는 角形(長方形)으로서 아무런 彫飾도 없다. 兩手는 胸前에 들어 모은 것 같으나 衣紋으로 인하여 手印을 把握하기 어렵다. 相好나 各部 및 衣紋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葉으로 推定되었는데 兩脚의 側面과 裙衣下端의 衣紋等은 注目되는 樣式이라 할 것이다. 實測 值는 像高一三六 肩幅七六 台座高一三一 台座下面徑一一五 cm. 頭高一五一 胸幅四七 足座高一三一 上面徑八二이다.

五、石谷里石佛立像

石谷面 石谷中學校 西方二百m 되는 畚中에 있는데 附近에 瓦片이 散亂